



나성순복음교회에서 열린 통일포럼 토크쇼에서 임창호 목사의 사회로 강철환 소장, 강철호 목사, 김아라 자매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 “북한에 복음 전해지면 통일된다”

나성순복음교회, 나침반교회에서 통일포럼 토크쇼

남가주 지역 한인성도들이 북한 구원과 통일을 위해 긴박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LA 지역은 21일 나성순복음교회에서, OC 지역은 23일 나침반교회에서 각각 '통일포럼 토크쇼와 통곡기도회'가 그날까지 선교연합(UTD-KCC, 대표 손인식 목사) 주관으로 열렸다.

통일포럼 토크쇼는 임창호 목사(고신대 교수)의 사회로 탈북자인 강철호 목사, 강철환 소장, 김아라 자매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그날까지선교연합의 트레이드마크라 할 수 있는 통곡기도회에 앞서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인권 현실을 먼저 생생히 알아야 '체대로' 기도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토크쇼였다.

강철호 목사는 탈북자 출신 제1호 목사로 현재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새티교회를 담임하고 있

으며 탈북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체인 북한기독교총연합회의 회장으로 있다. 그는 “북한에서는 기독교인을 종교인이 아닌 간첩으로 보기 때문에 처벌이 매우 심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통일의 시작은 복음에서 비롯된다. 북한으로 복음을 전달하는 일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전략센터 대표 강철환 소장은 “북한은 국가가 아닌, 김일성 일가를 신으로 섬기는 사이비 종교 집단으로 봐야 제대로 된 해석이 가능하다”면서 “사이비 종교적 신념이 무너지면 북한도 무너지기 때문에 북한 지도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외부 정보의 유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위해 “대북 라디오 방송과 한국 영화나 드라마가 담긴 USB를 북한에 유입하는 사역이 중요하다”고 소개했다.

또 “기독교가 들어오면 우상숭배의 허상이 무너지기 때문에 북한 정권은 기독교를 범죄시 하고 있다. 그러나 지하교인들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채널A의 탈북자 프로그램인 ‘이제 만나러 갑니다’의 김아라 자매는 북한 주민들이 겪는 아픔을 생생한 간증 형식으로 전했다. “최근 영화 촬영을 마쳤다”는 그는 “문화를 통해서 통일을 이루는 중간역할을 하고 있다. 저 같은 탈북자가 영화에 출연하고, 그 영화를 북한 주민들이 보게 된다면 그들이 얼마나 기뻐하겠는가?”라며 소망을 전했다.

손인식 목사는 “평범과 비범”이란 제목의 설교에서 북한을 위해 비범하게, 간박하게 기도하자고 강조하고 “지금은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는 때이다. 하나님을 붙잡고

## 선한목자장로교회 문일명 목사 위임예배 “주님의 빛 밝히는 교회 될 것”

선한목자장로교회 담임 문일명 목사가 교회가 속한 미국장로교(PCUSA) 샌가브리엘노회로부터 위임목사가 된다. 오는 8월 6일 오후 4시 로랜하이츠에 있는 교회 본당에서 위임예배가 있을 예정이다.

문 목사는 초등학교 6학년 시절 이민 온 1.5세이다. UC얼바인에서 엔지니어링을 전공했지만 목회자로 소명을 받은 후 풀러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해외한인장로회(KPCA)에서 안수받았다.

그는 나성영락교회 부목사를 거치면서 유년부부터 영어대학부와 영어 목회까지 1세, 2세 사역을 모두 섭렵하고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한우리장로교회 담임을 거쳤다. 담임목사가 공석이 된 파사데나장로교회를 8개월간 임시 담임했으며 2017년 7월부터 선한목자장로교회 담임으로 청빙받아 사역해 왔다.

샌퍼난도밸리교회 회장을 지냈으며 현재는 미국장로교 남가주·하와이 지역 한인교회협의회(KPC) 부회장이기도 하다.

이번 예배는 담임으로서 노회의 인준이라 할 수 있는 위임을 받는 자리다. 나성영락교회 전 담임이며 교계 원로인 박희민 목사가 설교하고 김인식 목사(웨스트힐장로교회)가 권면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북한을 구원하기 위해 기도하자. 기도가 곧 통일이다”라고 도전했다.

또 손 목사는 그날까지선교연합 통일선교사에 대해 소개하고 성도들의 참여와 후원을 부탁했다. 통일선교사는 매주 한 끼를 금식하며 통일과 탈북자, 북한 주민을 위해 기도하고 매달 10불 이상을 헌금한다. 현재 약 3,500명의 통일선교사가 활동 중이며 이들의 헌금은 전액 탈북



문일명 목사

위임식은 새장로교회 담임이며 미국장로교 한인교회 전국총회(NCKPC) 부총회장이자 남가주·하와이 KPC 회장인 원영호 목사가 인도한다.

문 목사는 “선한목자장로교회에 부임하게 됨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린다. 이 지역의 여러 교회들과 함께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빛을 밝히는 교회가 되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자 구출에 사용된다.

이어 성도들은 북한의 우상숭배와 인권탄압이 종식되며 지하성도와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갇힌 자들이 풀려나길, 전쟁 없는 복음통일이 이뤄지길 기도했다. 또 한국교회가 집에서 깨어나 통일의 주역이 되며 세계 모든 나라가 한반도 통일을 돕길 간구했다.

김준형 기자

“예수영광을 따라 광야로 나선 순례자들의”  
**기독교 대한감리회 빈들교회**  
담임목사 : 김 용 조  
■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오전 11: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32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Tel: (818)518-0033

ASE CERTIFIED **나라정비**  
나라오토덴트 유럽차 전문점 SMOG CHECK  
타이어 대리점  
**GOOD YEAR**  
범퍼·도어·바디복원·무료견적·Rent Car  
월~금: 8am~6pm, 토: 8am~5pm 1201 S. Western Ave, LA 웨스턴과 12가  
**323.734.4881**

**그린카피어**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킹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할증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 OC기독교교회협의회 제8회 사모블레싱 N.I.G.H.T

초대합니다

저희 OC교회협의회에서는 매년 수고하시는 교회 목회자 사모님들의 충성과 노고에 보답하기 위해서 제8회 사모블레싱 위로의 밤을 마련하였습니다. 즐거운 오락과 순서로 풍성한 경품과 선물 그리고 푸짐한 저녁 만찬을 준비했사오니 주저하지 마시고 오셔서 기쁨이 넘치는 축제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 일시 : 2017년 8월 8일(화) 오후 6:30
- 장소 : 나침반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 자격 : 남가주 지역에 사시는 목회자 사모님으로 200명 선착순으로 전화등록이나 Text 메시지로 사모님 성함과 교회 전화번호를 주시면 됩니다.
- 등록 : 교협 회계 이소연 사모 Tel:(714)234-6929  
교협 비서 한진영 사모 Tel:(562)822-7179  
부회장 박재만 목사 Tel:(213)255-0296



### 후원이사회 회장

전준홍 장로  
김영수 장로, 이종렬 장로  
유예복 장로, 이준영 집사  
이범식 장로

### 회장단

회 장 : 이호우 목사 (중소성교회)  
부회장단 수석 : 조현영 목사 (큰빛교회)  
기 획 : 신현철 목사 (얼바인연합선교교회)  
영 성 : 조형수 목사 (풍성한교회)  
신 학 : 박용일 목사 (남가주주마늘교회)  
대외협력 행정 : 박재만 목사 (남가주순복음교회)  
교 육 : 이태중 목사 (조이교회)  
선 교 : 이서 목사 (남가주비전교회)  
이관우 (평신도 연합회장)  
총 무 : 정효남 목사  
부총무 : 노상철 목사  
서 기 : 추석근 목사  
회 계 : 이소연 사모  
감 사 : 임익치 목사, 김영대 목사



미주 성경적상담학회가 주최한 '성경적 상담과 내적 치유' 컨퍼런스가 열렸다.



소망 죽음준비 전문가 교육이 최근 진행됐다.

### 죽음은 자연스러운 과정 존엄한 죽음 위한 준비 도와

#### 소망 죽음준비 전문가 양성

소망소사이어티(이사장 유분자)는 고령인구가 급증하는 한인사회에 수요가 급증하는 죽음준비 전문가를 양성하고 지부를 설립하고자 7월 13일(목)부터 15일(토)까지 제1회 죽음준비 전문가 교육을 실시해 17명이 수료했다.

이 과정은 소망소사이어티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컨텐츠로, 유분자 이사장, 최경철 사무총장, 김미혜 사무국장, 박혜수 교육부장 등 4명의 강사가 강의했다.

죽음의 과정, 죽음 준비를 위한 소망유언서, 마지막 2년 반, 치매, 사별과 애도, 전인적 건강, 나의 인생 등이 주요 강의의 주제였으며 강의뿐 아

니라 2번의 현장 방문과 포럼도 있었다.

유분자 이사장은 "이 과정은 죽음을 삶의 한 과정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가운데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하도록 돕는 지도자를 양성하는 데에 목적이 있었다"고 전했다. 참가자들은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 "죽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 인생 후반에 새로운 도전이 되었다"고 평했다.

소망소사이어티에서는 앞으로 정기적으로 죽음준비 전문가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문의) 562-977-4580



류당열 목사를 통해 장종현 박사에게 전달된 표창장 모습

#### 배스 상원의원 장종현 박사에게 표창

캘리포니아 제37지구 상원의원인 캐런 배스 박사가 지난 7월 4일 배스 박사는 미주 대신 증경총회 백석대학교 설립자이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전 총회장인 장종현 박사에게 표창장을 보내왔다.

배스 박사는 미주 대신 증경총회 장인 류당열 목사를 통해 표창장을 전달했다.

www.saseducation.weebly.com

**실무 10년의 노하우**

**SAS 인가컨설팅, Inc**

대표 Paul Kim, Ph. D

Tel : (213)531-7215, (909)993-3028

2975 Wilshire Blvd, Suite B01, Los Angeles, CA 90010

- 직업전문대학인가(ACCSC)
- 신학교 인가(TRACTS, ATS)
- BPPE 신규 및 재승인
- 어학원/온라인 프로그램

summitus37@gmail.com

## 건강한 가정과 교회, 이민사회 세우자

### 제6회 성경적 상담 컨퍼런스 열려

"성경적 상담과 내적 치유"라는 주제로 성경적 원리의 내적 치유를 다룬 제6회 미주 성경적 상담 컨퍼런스가 지난 7월 17일부터 22일까지 애나하임에 위치한 미국 코너스톤교회에서 놀라운 치유와 은혜, 그리고 성령의 감동이 넘치는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상담학 대학 교수, 상담목회자, 가정사역자, 평신도 사역자, 그리고 내적 치유가 필요했던 평신도들이 참석했다.

금번 컨퍼런스에서는 백석대학교 기독교학부 실천신학 교수로서 목회상담학, 상담설교 등을 가르치는 전형준 교수가 전체 60시간 중 52시간을 담당했고, (주)농심의 전 CEO였던 신재덕 박사가 8시간의

특강을 담당했다.

이번 컨퍼런스 참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치유를 경험했다고 전했다. 한 참가자는 이혼을 생각했다가 상처를 치유받고 부부 관계가 회복됐다고 간증하기도 했다. 부부 가운데 혼자 참석한 이들은 다음 제7회 컨퍼런스에는 부부가 함께 참석하겠다고 예약하기도 했다.

전형준 교수는 성경적 상담의 역동적 과정을 통한 변화의 로드맵 8 단계를 제시했고 내적 치유의 근거를 성경 말씀에서 찾아가며 전달했다.

전 교수는 "이 컨퍼런스를 통해 이민자들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고 건강한 가정과 교회, 건강한 이

민사회를 세워가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사역 비전"이라고 밝혔다.

올해로 6번째를 맞이한 성경적 상담 컨퍼런스는 앞으로 1년에 두 차례, 7월 셋째주와 1월 셋째주에 각각 한 주간씩 개최된다. 제7회 성경적 상담 컨퍼런스는 2018년 1월 셋째주인 1월 15일~20일까지 '성경적 상담과 우울증'이란 주제로 오렌지카운티 지역과 뉴욕 지역에서 개최된다. 이와 함께 탈진한 목회자 부부를 위한 무료 세미나도 준비 중이다.

참가 문의 및 신청은 전화 714-864-7540(드보라 김 목사)로 하면 된다.

헬비 권 기자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창업 어떻게?

### UGN복음방송 주최

오는 8월 8일

UGN복음방송(대표 여운영 목사)이 8월 8일(화) 오후 6시부터 "4차 산업혁명 시대, 자본없이 인터넷 글로벌 1인 기업 창업 및 연결"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에 대한 주제강의들은 김희창 박사(트리니티대학 총장)와 여운영 목사가 전한다. 세미나는 무료이며 4차 산업혁명과 무자본 인터넷 창업에 관심있는 모든 이들이 참여할 수 있다.

과거 UGN복음방송은 로스앤젤레스한인침례교회(박성근 목사)에서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온라인 글로벌 창업과 일터영성"이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연 바 있다. 당사에서 4차



UGN복음방송이 과거 '4차 산업혁명과 일터영성'이란 주제 아래 개최했던 세미나 모습.

산업혁명을 주제로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일터 선교의 개념을 정립해야 하는지 심도있게 다룬 바 있다. 이번 세미나의 장소는 2975

Wilshire Bl. #415 Los Angeles, CA 90010다.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 www.iugn.net/WLS나 전화 213-700-2891로 확인할 수 있다.

# 미주 총신대학교 입학/편입생 모집

미주 총신 대학교는 장로교 신학교로서 1991년 2월 대한 예수교 장로회(한국/합동) 총신대학교 재단 이사회에서 미주 본교로 인준하였고, 1995년 대한 예수교 장로회 81회 총회의 결정에 따라 독립 운영되는 인준 신학교이며, 대한 예수교 장로회(미국/합동) 해외 총회의 인준 신학교입니다. 본교는 칼빈주의 개혁교리에 기초하여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갈 목회자, 선교사 그리고 여러 방면의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39회 7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받아 그의 사역자로 헌신하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2017년 가을학기 개강 일시: 2017년 8월 29일(화) 오후 7시

#### 대학 학과 및 학위과정

학사과정: 신학과 (BA in Theology)

#### 신학대학원 및 학위과정

신학대학원:

M.Div.(목회신학전공) - 학사학위 소지자로 세례교인

D.Min: 석사 학위 소지자



본교 수업은 특별 세미나와 토요 집중 강의(오후 1:00-6:00)로 개설되고 있습니다

#### 박사과정(Doctor of Ministry) 모집 공고

D. Min. - 목회 경력 3년 이상의 M.Div. 이상 학위 소지자

1. 학교 입학에 필요한 원서와 서류를 학교 홈페이지(www.chongshinusa.edu)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 유학생을 위한 I-20 Form을 발행합니다.
  3. 각종 장학혜택이 있습니다.
  4. 지역에 따라 타주 또는 타국에서도 통신으로 수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본교는 현재 주정부에 등록된 대학으로 연방정부가 인정한 Transnational Association of Colleges and Schools (TRACTS)에 인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 사회교육원(학사 과정/ 학점 은행제) 모집 공고

고등학교 졸업자 혹은 동등 학력자/ 조금 2년제 대학 졸업 및 대학 학점 소유자는 편입하여 학점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토요일에는 성경교육과 신학영역에 기초한 영어회화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학사 운영 방식: a. 학점 은행(120학점) b. 한국어와 영어 성경 Classes
2. 수업 일시: 토요일 강의 개설  
토요일: 1 교시 오전 10:00 ~ 12:00  
2 교시 1:00 ~ 3:00 (각각 3학점 총 6학점 이수)
3. 유학생을 위한 I-20 Form을 발행합니다.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School of Theology



미주총신대학교

이사장 김근수 박사(Th.M., Ph.D.)  
총장 김연도 박사(D.P.M.)

TEL: 213.487.1010 FAX:213.487.3303  
I-TEL: 070-7019-1011  
2975 Wilshire Blvd.#300, L.A., CA 90010

www.chongshinusa.edu  
e-mail : info@chongshinusa.edu



이번 기도회를 준비하는 교계 지도자들이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행사를 소개했다.



나성교회가 멕시코 선교를 마친 후 그 결실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 종교개혁 500주년, 성경으로 돌아가자

## 한인들 중심으로 은혜한인교회에서 다민족연합기도회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 남가주 한인교계를 중심으로 다민족연합기도대회가 열린다. 종교개혁주일인 10월 29일 오후 5시부터 3시간 동안 은혜한인교회에서 “Back to the Bible- 회개, 성결, 선교”라는 주제 아래 한인을 중심으로 다민족들이 함께 한다.

지난 7월 25일 은혜한인교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주최측 관계자들은 “이번 기도회를 통해 교회마다 성경 읽기 운동이 전개되고 성경적 가치관이 회복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기도회에서는 미국과 한국의 대부흥, 세계선교 등을 위해서 기도할 예정이다.

기도회 자체가 성공적일 뿐 아

니라 이 대회를 준비하면서 남가주 모든 기독교단체들이 하나되는 것도 큰 기도제목이다. 이번 행사에는 주최단체로 남가주교협과 목사회, OC교협과 목사회뿐 아니라 중부교협, LA동부교협, 인랜드교협, 밸리교협, 샌디에고교협, 사우스베이목사회 등 남가주 지역 교계 단체들이 사상 최대 규모로 참여한다. 미주성시화운동본부와 CMF, 미스바기도운동, 순무브먼트, HYM, JAMA도 주최 단체로 이름을 올렸고 평신도 단체들 중에는 남가주장로협, OC장로협, OC평신도연합회가 함께 한다. 행사의 주관은 종교개혁500주년기념대회 준비위원회가 한다.

주최측은 오는 8월 중으로 다민족 교계 지도자들을 초청해 기도회를 소개하고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며 9월까지 남가주 각 지역을 순회하며 교회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대표대회장 한기홍 목사(은혜한인교회 담임)는 “성경으로 돌아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철저히 회개하고 종교개혁 500주년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세계선교를 위해서는 교회가 회복되고 분열된 교계가 하나되어야 한다. 교계와 지도자들부터 먼저 회개하고 용서하는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면 하나님께서 건강한 이민사회를 세워주시길”이라고 전했다.

#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 나성교회 멕시코 선교 보고

나성교회(담임 정동석 목사)가 지난 23일 주일 멕시코 선교 보고 모임을 가졌다. 이 모임에서는 선교부장 황찬의 집사의 진행으로 멕시코 선교의 열매를 나누었다.

20년째 러브멕시코를 감당하고 있는 박세목 장로는 감옥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한 성도가 10년 형을 마친 후 출옥해 목사가 되고 현재 멕시코 선교를 돕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번에 처음 멕시코 선교에 참여한 김은미 집사는 “박세목 장로를 통해 복음을 듣고 헌신하는 그 목사 부부에게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어 감동이였다”고 간증했다. 또 “재활원 사역, 봉제학교 사역, 집 지어주기 사역 등 많은 선교 사역을 통해 소망 없는 영혼들이 복음을 알게 되고 삶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 동참하게 되어서 기쁘다”

고 전했다.

정시용 집사는 “선교는 조용히 시작해서 주님의 큰 열매를 맺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이번 선교를 다녀온 소감을 전했다. 그는 “도우러 간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왔다. 무의탁 노인들을 혼자 돌보고 있는 자매에게 큰 감동을 받았다”고 했다. 황우수 장로는 “말은 안 통했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 수 있어 선교의 큰 기쁨을 깨닫게 됐다”고 전했다.

황찬의 선교부장은 오는 9월 예정된 멕시코 선교 일정에 대해 기도로 준비하기를 권하며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한다. 9월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많이 전할 여지길 바란다”고 했다.

헬비 권 기자

# “첫 주택 구입, 아는 만큼 혜택 받는다”

## KCCD 주최 제16회 주택 구입 박람회 열려

KCCD(한인기독교커뮤니티개발협회, 임혜빈 대표)가 첫 주택구입자를 위해 제16회 주택 구입 박람회를 LA 한인타운 내에 있는 사우스웨스턴 로스쿨에서 최근 개최했다.

KCCD는 은행, 주택 매매 전문가,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수년째 주택 구입 박람회를 개최해 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8,800명이 이 행사를 통해 주택 구입에 대한 정보를 얻거나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다.

이번 제16회 행사에는 남가주 지역 25개 도시에서 180여 명이 참석했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을 대신해 이 자리에 참석한 벤 윈터 씨는

“LA시는 카운티 내에서도 주택 소유자가 매우 적은 곳”이라며 KCCD가 LA 시민들을 위해 이런 행사를 여는 것에 대해 격려했다.

이번 행사에는 US뱅크,뱅크오브더웨스트, MB파이낸셜, HSBC 등 금융권에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또 LA 주택국 관계자는 저소득층 첫 주택 구매자에게 6만 달러 보조금을 주는 정책을 소개했다. 그리고 이 보조금은 조만간 9만 달러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특별히 주택 구입에 필요한 크레딧 점수를 높이

는 법 등 다양한 정보가 제공됐다. KCCD는 향후 주택을 구매하려는 주민들을 위해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로 된 무료 상담을 진행한다.

행사 중에는 캘리포니아 주 에드차우 하원의원, LA 에릭 가세티 시장, 캘리포니아 주 베티 이 컨트롤러 등이 임혜빈 대표에게 커뮤니티 봉사를 격려하며 표창장을 수여했다.

한편, KCCD는 단체명을 Faith and Community Empowerment (FACE)로 변경할 예정이다. 전화) 213-985-1500 이메일) info@kccd3300.org



KCCD가 LA 한인타운에 있는 사우스웨스턴 로스쿨에서 주택 구입 박람회를 개최했다.

· 이번에는 무슨 차로 할까? · 요즘 스포츠카 있는 차가 무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용자가 될까?  
· 안일 해결요? 15년의 경험을 기반으로 고객님들의 고민 해결을 한 달에 남게 드립니다.  
· 전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다 둘러보시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6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철리 정

**현대 HYUNDAI**  
Pueno Hills Hyundai

철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문/사/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아이비 유학** Shelby Kwon Director

**3-7-21 재능캠프** **얼바인 홈스테이 정착 서비스**

LA 500 Shatto Place, Suite 200  
Torrance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Irvine 17702 Cowan, Irvine, CA 92614

USA Tel: (949) 329-8222  
Email: shelby.moon65@gmail.com  
www.Mylvydream.com

# 문일명 목사 위임예배

선한목자장로교회

선한목자장로교회에 부임하게 됨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지역의 여러 교회들과 함께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빛을 밝히는 교회가 되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일시 : 2017년 8월 6일(주일) 오후 4:00
- 장소 : 선한목자장로교회 본당

### 위임목사



**문일명 John I. Moon**  
T(818)357-6357  
현 선한목자장로교회 담임목사  
현 KPC (남가주/하와이 지역) 부회장  
샌퍼난도밸리 교회/교역자 협의회 회장  
파사데나장로교회 임시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담임목사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부목사

### 설교



**박희민 목사**  
나성영락교회 원로목사

### 권면



**김인식 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담임  
해외한인장로회 중경 총회장

### 위임예배 사회



**원영호 목사**  
새장로교회 담임  
NCKPC 부총회장  
남가주/하와이 KPC 회장

특 송 에버그린 합창단(Evergreen Choir)  
특 순 God's Image(갓스 이미지)



<선교 부흥을 회복하라 - 27>

### 러브 호프 투게더 김광빈 목사 이야기



이상훈 목사  
주비전교회 담임

필자는 지난 몇 년간 매일 아침 마음을 설레게 하는 카톡을 받는다. 러브 호프 투게더의 김광빈 목사가 보내주는 한 구절의 성경과 한 문장의 묵상 글이다. 어느샌가 새벽기도를 마치면 꼭 도착해 있는 그 구절 하나가 날마다 생활에 활력을 준다.

김 목사 부부는 개인과 가정을 회복시키는 특수사역을 한다. 자기의 삶을 잘 관리하지 못하여 병들고 무너진 자들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며 그들을 섬기고 상담하고 기도하고 돌보아 주는 실제적인 회복사역이다.

잔잔한 성품에, 늘 입가에 미소가 있는, 평안함이 얼굴빛에서부터 우러나는 온유한 분이다. 이런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우리들 곁에 함께 있다는 것이 축복이다.

요즘 나는 '교회론'을 다시 배운다. 무슨 무슨 교회 예배당 앞에 간판을 붙이고 그곳으로 예배 때마다 성도들이 모여드는 그곳만이 교회라 생각했다. 그러나 예배소에서 말한,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는 그것이 아니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찾아가서 나누는 곳, 누가 내 이웃인가를 묻는 자들에게 사마리아 사람의 선행을 이야기 하며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 속에 교회의 본질이 있었다. 김 목사의 러브 호프 투게더 사역은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는 사역이다.

"함께 하자"면서 카톡방에 '언제, 어디서, 누구를 위한' 하고 공지사항을 알린다. 그러면 그 시간

그곳으로 함께 하는 동역자들이 모인다. 그곳이 어느 곳이든 거기엔 건물 없는 교회가 된다. 진정한 사랑이 있다. 주님이 원하시는 충성이 있다. 소외당하고 가난한 이웃을 향한 뜨거운 긍휼이 있다. 찬양이 울린다. 눈물의 기도가 쌓인다. 힘과 용기를 주는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된다. 그렇게 주님의 교회는 멋지게 세워진다. 일그러진 얼굴에 미소가 담긴다. 불평하던 입에서 감사가 나온다. 서로 포용하고 나누는 그 현상이 주님이 말한 대로 "천국은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주님이 가라 하시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간다. 노숙자에게든 재활원이든 교도소든 병원이든 거기엔 남미선교사들. 그들에게 사랑과 소망을 심어주고 '우리는 함께'라는 공동체 마음을 갖게 한다. 그것이 주님이 진정 원하시는 예배, 진정한 교회의 회복이 아닐까? 나는 오늘 아침도 그가 보낸 말씀 한 구절을 가슴 한복판에 두고 하루를 시작한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달음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음질하라(고전9:23,24)**

**진정한 성공을 세상에서 만 찾고 만들려면 헛된 달음질이고 잠시 뿐이지만**

**복음 안에 있는 성공은 절대 후회 없는 영원한 상이며 진정한 달음질이다.**

김광빈 목사가 매일 아침 보내는 묵상 캡처 화면

### ● 이장렬 교수의 <회복의 복음> 칼럼- 마지막회

## 제자도의 책임 (요21:18-19)



이장렬 교수  
미드웨스턴침례신학대학원 신약학

에서 "따르라"는 헬라어로 아폴루페이다. 이 명령형 동사는 현재시제인데, 헬라어의 현재시제 동사는 많은 경우 현재진행의 뜻을 담고 있고, 이 경우도 역시 그렇다. 다시 말하면, "나를 따르라"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은 단회적으로 결단하고 실천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매일 순간마다 따라야 할 명령이다. 어제의 제자도가 오늘의 제자도를 대신하지 않는다. 오늘의 충성이 내일의 충성을 대체하지 않는다.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제자된 삶이다.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명령은 또한 지극히 인격적인 성격을 내포한다. 주님의 명령은 따라야 할 대상이 한 특정 인격체임을 분명히 한다. 주님께서서는 단순히 어떤 교훈 혹은 특정 기관을 따르라 하지 않으셨다. "나" 즉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을 좇으라 명하셨다. 제자도란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좇는 일이다. 그 가운데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어가는 것이다. 그렇기에 제자도는 지극히 인격적인(personal) 행위다.

요한복음 21:19의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명령은 베드로의 제자 소명을 재확인시켜주는 회복의 말씀이다.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그 소명 말이다(빌 2:6-8; 막10:45 참조). 고난을 감내하고 순교와 핍박을 전제하며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 묵묵히 그리고 끈기 있게 따라가는 그 소명 말이다(막8:27-10:45 및 공관복음 병행구들, 특히 눅9:23참조).

부활하신 주님은 디베라 바닷가로 처절히 실패한 제자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를 재할복구시킨다. 변절자 베드로가 이제 충성스러운 제자로 끝까지 보존될 것을 담보하신다. 그러나 동시에 베드로가 순간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초점을 두고 그분을 긴밀하게 그리고 친밀하게 좇아야 함을 명하신다. 이렇게 디베라 바닷가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다시 한번 신비롭게 하나가 되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가 훗날 십자가에 처형될 것이고 그러한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그런 일이 어찌될 있을 수 있겠다고 추측하시는 게 아니다. 베드로의 죽음에 대한 예언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21:18)라는 반박강조 어구로 시작하시면서 앞으로 베드로에게 벌어질 일의 확실성을 담보하신다.

그런데 디베라 바닷가에서 주님을 대면한 베드로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렸을까? 만일 누군가 나에게 와서 30여 년 후에 이 세상에서 가장 잔혹한 방법으로 처형될 것이라고 말한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 만일 다른 사람이 아닌 주님께서 직접 그런 말씀을 내게 하신다면 어떤 느낌일까? 꺼림칙한 느낌일까? 압도적인 부담감이 앞설까?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싶어질까? '아이, 설마 그런 뜻은 아니시겠지.....' 하면서 어떻게 빠져나갈 구멍을 찾으려 들까?

그러나 저주의 선언처럼 들리는 주님의 예언이 베드로에게는 격려의 말씀으로 다가온다. 얼마 전 목숨 부지를 위해 스승과의 관계를 거침없이 부인하고 거듭 또 거듭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자신의 십자가 처형 예언이 위로 그 자체다. 처절히 실패했던 제자 베드로에게 자신의 처참한 최후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샬롬(shalom) 그 자체다. 왜냐하면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 변절자 베드로가 충성된 제자로 끝까지 보존될 것이라 약속하시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붙잡아 주실 것이고, 그가 배신자가 아닌 충성스러운 제자로서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도록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렇기에 십자가에 처형될 것이라는 저주 총만한 것 같은 선언이 베드로에게(적어도 베드로에게) 축복 가득한 선포다.

일찍이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고 장담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실로 참담했다. 주님을 위해 생명을 던지겠다는 베드로의 호언장담은 얼마 지나지 않아 생존을 위한 세 번의 반복된 부인으로 이어진다(요18:15-18,

25-27; 13:18 참조). 그러나 이제는 배신자 베드로가 충성스러운 제자로 끝까지 보존될 것이라 약속하신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라는 반복 강조의 표현을 통해 베드로를 지켜주실 것을 확실히 담보하신다. 자신의 목숨부지를 위해 주님을 배신했던 베드로에게는 주님을 따르다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하는 것이야말로 주님에 대한 궁극적 사랑을 표현할 기회다.

부활하신 주님께서서는 변절자 베드로가 충성스러운 제자로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도록 끝까지 그를 지켜 주실 것이지만, 그렇다고 베드로가 앞으로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그저 그가 스스로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살아도 된다는 뜻도 아니다. 주님께서 베드로가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을 충성 되게 좇아야 함을 말씀하신다.

"이 [베드로의 최후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요21:19)"

베드로는 여생 동안 매 순간 주님을 좇아야 한다.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본받아 로마의 십자가에 달려 순교할 그때까지 하루하루 주님만 좇아야 한다(21:22 참조). 장래에는 십자가에서 충성스러운 주의 제자로 순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요21:18-19). 하지만 지금 베드로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한 가지 있다. 바로 순간순간 주님을 좇는 일이다(요21:19).

디베라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나를 따르라(요21:19)"

라미라다 기든 꽃집

## La Mirada Garden Florist

Flowers For All Occasions

Serving OC and LA Counties since 1969

라미라다 기든 꽃집은 35년 넘는 경험, 노하우, 자신감, 그리고 새로운 감각의 꽃으로 여러분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꽃집입니다. 결혼식, 장례식, 개업식 그리고 모든 이벤트를 아름다운 꽃과 서안관, 각종 화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와 LA 카운티 배달 해 드립니다.

[www.lamiradagarden.com](http://www.lamiradagarden.com)  
[lamiradafiorist@gmail.com](mailto:lamiradafiorist@gmail.com)

**Tel. (714) 521-0901, (800) 645-1114**  
14794 Beach Blvd., City of La Mirada, CA 90638

### 기독교일보

편집교문 : 박희민, 정재효, 박기호, 방지각, 김종연,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이 사 장 : 오병익      발 행 인 : 이인규      교문번호사 : 정찬웅  
 지 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리 스 장 의 사    LEE'S FUNERARIO

FERRARA & LEE'S MORTUARY    Un Mortuario Colonial De Empresas Ferrera

Since 1966

## 리 스 장 의 사

### 더 가까이에서, 더 편안하게 모십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서 1966년부터 고객들을 모셔온 리스장 의사 1000대 동시 주차가 가능한 넓은 파킹장과 리뉴얼 된 쾌적한 채플 비디오 모니터를 비롯한 최신 시스템, 편리한 캐터링서비스와 아름다운 가든까지, 이 모든 것을 갖춘 곳은 리스장 의사 뿐입니다. 오렌지카운티에 계신다면, 리스장 의사와 상담하세요

**고인의 교회, 자택 등, 평소에 고인이 편안하게 생각하신 곳에서 장례식을 치루실 수 있도록 출장서비스도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리스장 의사에서 가족처럼 함께 일하실 장례서비스/장례적금/장례보험 카운셀러를 모십니다  
문의 (310)984-0888 / rchoi@leesmortuary.com

왜 리스장 의사 일까요?

- 유족과 같은 마음으로 리스장 의사도 함께합니다. 하지만, 장례는 현실입니다
- 지금은 무한 경쟁시대, 최소 10% 이상 더 저렴한 비용을 약속드립니다
- 타 장의사의 채플비용을 절약하시면서 고인과 지인들에게 가장 편안한 장소를 선택하세요

24시간 한국어 문의

## (714) 469-1040

Fax (714) 333-4916    351 N Hewes St, Orange, CA 92869

채플을 보유한 오렌지카운티 유일의 한인장 의사

## 리 스 장 의 사

Lee's Mortuary FD1164







www.sellacare.com SEARCH

**Congratulations!**

서울대학병원/암센터내 **샐입점** 고려대 안암병원내 **샐입점**



혈액 해독 / 기력 회복

천연 항염, 혈관 탄력  
면역력 강화

심장, 뇌 혈전 용해

뼈, 골수 영양 공급

#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sup>®</sup> 세트

유태인 코셔인증의 고급 유기농 원료로 만든 미국제품으로 미국 FDA인증의 CGMP생산물

혈관질환을 예방하고 싶다면 **혈액순환, 혈관건강**부터 지켜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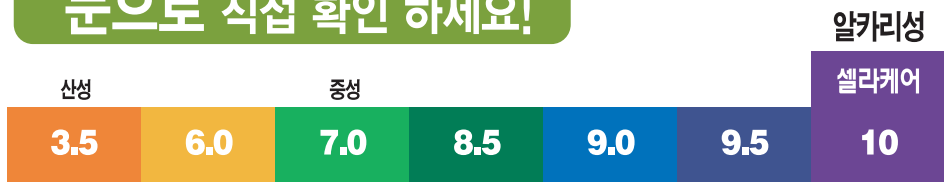
- 혈관성 치매 건강에 좋은 음식이나 건강식품 섭취하여 혈관성 치매 예방
- 뇌졸중 기름지고 콜레스테롤이 높은 음식은 피하고 섭취함으로써 뇌출혈 예방
- 동맥경화 평소 혈액순환에 좋은 음식을 복용하여 신체의 혈관청소에 도움 줘야
- 고지혈증 음주를 자제하고 수영, 등산 등 운동과 함께 혈액혈관 영양제 복용

면역력이 곧 기적!  
어떠한 병이든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영양제

- ✓ 100% Organic (유기농)
- ✓ Non-GMO (유전자조작 無)
- ✓ All Natural (순수천연)

- 1 체내 흡수가 빠르므로 복용 효과가 높습니다. (1-3일 내)
- 2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 내에 영양을 공급하여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함으로서 무슨 병이던지 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 3 세계 특허(특허번호 5128139) 공법으로 제조되어서 복용 후 체내 흡수율이 다른 제품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흡수율 92-96%)
- 4 셀라케어의 모든 제품은 남녀노소 모두 복용가능합니다.
- 5 소비자의 재구매 확률이 높습니다.

눈으로 직접 확인 하세요!



셀라케어 제품은 알칼리 테스트(PH Test)에서 최고 품질의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병치료와 장수의 시작은 피를 맑게 하여 알칼리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유태인 특수영양제 M3세트

# SELLA CARE<sup>®</sup>

정직한 마음으로 권합니다.

제품상담문의 213.435.9600

본사(LA)	213.435.9600	현대약국 (웨스턴+5가)	213.480.3322	세리토스 파이오니아약국	562.402.6972	세크라멘토/아리조나	602.332.6492
다운타운 산페드로	213.765.9677	LA시온마켓 엄마손약국	213.739.3030	에나하임	714.469.5809	시카고 알바니아약국	847.699.1511
LA내처영양센터	213.739.8874	올림픽갤러리아마켓약국	323.733.7200	얼바인	949.330.9009	시카고 서울마켓 (헬렌)	224.406.0337
LA 다운타운	213.798.3333	뉴서울호텔 (팔달)	213.386.5310	랜초쿠카몽가	909.987.9500	조지아 (발아건강식품)	770.457.1717
국제건강가족동호회	213.382.9714	글렌데일 한국마켓약국	818.637.7708	다이아몬드바 JJ 약국	909.595.4003	텍사스 (Nature's Gift)	972.280.9006
시온약국	213.344.9730	밸리 소망 약국	818.832.2757	놀워 H 마트 리빙헬스	562.402.8859	플로리다/NC/SC	770.457.1717
LA 아드모아약국	213.385.2135	발보아 약국	818.831.2090	로렌하이츠	626.912.5727	씨애틀 (건강마을)	206.229.5466
LA 한국마켓약국	323.464.3925	플러튼 내처영양센터	714.690.0120	그린랜드 건강헬스(그린마켓 내)	626.839.2868	하와이 (생약촌)	808.947.8086
LA 베스트약국	213.385.9926	부에나팍 지구촌약국 (마트 내)	714.228.9212	토랜스 한남체인(건강마을)	310.619.7758	캐나다	604.872.1669
우리약국 (우리종합병원내)	213.384.6323	가든그로브 만미당영	714.333.7866				
LA별론 마틴약국	213.382.9718	가든그로브 한성한의원	714.638.5100				
LA별론 갤러리아마켓약국	213.388.4100	세리토스 패밀리약국	562.402.0500				
LA 5가버질 그랜드약국	213.380.5103	세리토스 그린라이프	562.402.6970				

한국총판 010.4399.6247  
 서울혜화동 서울대병원 본원내 02.2072.1579 / 암센터내 02.2072.7565  
 서울고대 안암병원내 2층 02.928.9580 경기 분당 서울대병원내 031.719.9589



## Americans Identifying with Specific Denominations on the Decline, According to Study

*Meanwhile, number of 'non-denominational' Christians grows*

While a 2014 Pew study that found an increase in Americans who affiliate with no religion received much attention, a new study published on July 18 found that among those who identify as Christians, more have been identifying as "non-denominational" over the past several years.

The Gallup poll found that between the years 2000 and 2016, the number of Americans who identified with a specific denomination dropped from 50 percent to 30 percent.

The significant drop is a result of two trends, according to the research organization — one of them being an increase in those who identify as "non-denominational."

American Christians who identify as non-denominational doubled in the same time period, from 9 percent to 17 percent, the study showed.

But Gallup also pointed to an

increase in Americans who don't affiliate themselves with any religion as another factor.

"Since the percentages of Catholics, Mormons and those who identify with a non-Christian religion have stayed roughly the same over time, this 'rise of the nones' — from 10% in 2000 to 20% in 2016 — has generally been accompanied by an associated decrease in the broad category of Protestants, whose numbers shrank from 57% to 47%," Gallup said.

Steve Gaines, president of the Southern Baptist Convention, said that the poll results point to a need "to have churches that are marked by the supernatural presence and power of God."

"If people sense the presence of Jesus at a church, they will come and be part of what God is doing," Gaines told Baptist Press. "And they won't care whether that church is part of a denomination or not."



International City Ministry carried out a street evangelism effort from mid to late July in Manhattan, New York.

## With Hopes for Revival, Sharing the Gospel in Manhattan

A Korean ministry carried out a focused evangelistic effort from mid to late July in the Northeastern region of the U.S. with hopes that a new wave of revival would come to the country.

Called the International City Ministry (ICM), the group shared the gospel in Manhattan, NY from July 17, and the evangelism spurt ended on the 26th.

In teams of three people each, hundreds of participants went out into the streets of Manhattan, sharing the gospel through tracts available in 14 different languages. Over the past 12 years, ICM said

the gospel has been shared to some 1.9 million people through its efforts.

"With people of some 400 different ethnic groups, New York is a contemporary version of the city of Rome 2,000 years ago that the Apostle Paul so desired to visit," said Rev. Hosung Kim, president of ICM. "As a way to repay the gospel debt we have to the American missionaries who gave their lives to share the gospel in Korea, this movement is also taking place in Washington, D.C. and Boston, and we hope to reach students of Ivy League schools as well."

The movement has also been noted for the widespread participation of second generation Korean Americans.

"We've been grateful to see many Korean Americans and members of English ministries participate in this movement, which is a way to share the gospel without having to go overseas," said Kim.

"Many churches in New York, as well as in other places throughout the Northeast such as Washington D.C. and Boston have come up to join us in New York from the early hours of the morning to participate."

## Potential Home Buyers Glean Advice on Homeownership from Experts in the Field

Those who have never owned a home, but are considering buying one, may be overwhelmed with aspects to consider and may not even know where to start. A non-profit in Los Angeles recently hosted an all-day event at Southwestern Law School for just such potential homeowners.

The event was the 16th annual one hosted by Korean Churches for Community Development (KCCD), which will soon change its name to Faith and Community Empowerment), during which banks, experts in the field, and government officials attended and offered practical advice to new and potential homeowners. According to KCCD, more than 8,800 people have been educated

on homeownership through the annual events since its beginnings.

More than 180 individuals from 25 different cities attended this most recent event which took place in early July.

Hyepin Im, the executive director and CEO of KCCD,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homeownership by citing some statistics. For instance, the net worth of homeowners is 36 times greater than that of renters, according to a Federal Reserve study, she said.

"We have one of the lowest rates of homeownership in the country. It actually has declined since the Great Recession and has not rebounded," said Ben Winter from the Los Angeles Mayor Eric Garcetti's Office. "I think organizations like KCCD/FACE are so important to help navigate this challenging housing market."

At the homeownership fair, numerous banks presented the loan products they offer, including Union Bank, U.S. Bank, Boston Private, HSBC Bank, Bank of the West, and MB Financial Bank.

Government assistance programs were also presented, including one offered by the City of Los Angeles called the Low-Income Purchase Assistance (LIPA). Currently, LIPA provides up to \$60,000 in down payment and closing cost assistance to qualifying first-time home buyers. That will soon increase to \$90,000 "in the coming months," according



Attendees of the recent homeownership fair hosted by KCCD visit a booth and speak with representatives. (Photo courtesy of KCCD)

to George Guillen of the City of Los Angeles Housing and Community Investment Department (HCIDLA).

Meanwhile, KCCD offers free counseling sessions for potential home buyers in English, Spanish, and Korean.

## Churches' Service to Community Frequently Goes Unnoticed, Study Shows

Though many churches regularly engage in one or multiple forms of community service, not many Americans seem to be aware of those good works, according to a study released on Thursday.

The LifeWay Research study found that among 1,000 Americans, 60 percent have heard of churches "feeding the hungry," and half have heard of churches

"clothing the poor," but not many have heard of churches engaging in the 11 other service acts that were listed in the survey.

For instance, 39 percent knew of churches that help disaster victims, and 33 percent knew of churches sheltering the homeless.

Even less knew of churches that meet with people in prison (25 percent), offer after-school programs (24 percent), support local schools (21 percent), provide aid for new mothers (19 percent), offer tutoring (16 percent), teach English to immigrants (13 percent), teach job skills (13 percent), or volunteer to provide foster care (12 percent).

The least known service that churches offer was providing tax preparation (8 percent).

Meanwhile, some haven't heard of any of these services (14 percent), while some weren't sure if they had heard of them before (17 percent).

"Unless you've received help from a church — or been involved in serving others — these kinds of programs may fly under the radar," said Scott McConnell, executive director of LifeWay Research.

He added that the lack of awareness of churches' service projects may cause members in the community to "miss out" on opportunities.

"People who need help may be missing out," he said. "And Americans who want to lend a hand might miss the chance to help out and along the way connect with the church."



### 한인신학교 최초 ATS 정회원 인준

미연방정부 학비 지원 • 미국 정규대학 학사/석사 학위 • 한국어 강의 • 미군목 장교지원  
미국 주류 기독교대학(원) 편입학 • 온라인 수업&모바일 사용 • 유학생 1-20 발행



기독교대학연합회 정회원(ABHE)  
신학대학원협의회 정회원(ATS)

미정부 재정지원 (Pell Grant)  
유학생 1-20 발행

WORLD MISSION UNIVERSITY

#### 캠퍼스 프로그램

- 준학사과정: 성서학과 / 기독교상담학과
- 학사과정: 성서학과 / 기독교상담학과 / 음악학과
- 석사과정: 목회학과 / 신학과 / 기독교상담학과 (LA분교, OC분교) / 음악학과
- 박사과정: 목회학과 / 교회음악학과 (신설)
- 수료증과정: WMU 상담교실 / 바이블 아카데미 / 가정상담사역자과정

#### 온라인 프로그램

- 준학사과정: 성서학과 / 기독교상담학과
- 학사과정: 성서학과 / 기독교상담학과
- 석사과정: 목회학과 / 신학과 / 기독교상담학과
- 수료증과정: 가정상담 사역자과정 / 유아교육 원장 및 교사과정

미국정규 학위를 취득 및  
배움의 기회 확대를 위한  
대학(원) 진학 및  
편입학 제도

대학과정 재학생의  
50% 이상 학비지원  
연간 평균 \$5,800의  
정부 학자금 혜택

세계 어디에서나  
미국 정규 학위를 취득하는  
학문탐구 기반의  
온라인 수업

다분야의 성서적  
인재양성을 위한  
다양한 학과 및  
우수한 교수진

월드미션대학교 | 2017년 가을학기  
**신(편)입생 모집**

원서접수 마감

**2017년 8월 4일(금)**

입학문의

**213 388 1000**

admissions@wmu.edu



**World Mission University** 월드미션대학교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Local Churches and Ministries

**Christianity Daily**  
A ministry through journalism  
For questions about advertising and donations  
T.(213)739-0403 F.(213)402-5136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PASTOR JUSTIN KI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7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Sunday Services: 9:30 AM & 11:30 AM  
Sunday School: 11:30 AM  
College Group Meetings: Fridays at 6 PM  
**PASTOR SUNG CHANG**

**Charis Mission Church**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www.charismissionchurch.org



Placentia Site Sunday Services: 10 AM  
Artesia Site Sunday Services: 11:30 AM, 1:15 PM  
**PASTOR HAROLD KI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Artes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Placentia: 500 Bradford Ave, Placentia, CA 92870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c.com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Sunday Services: 11:30 AM  
**PASTOR HENRY LEE**

**Crossroads Church**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www.crclafgc.com



Brea Campus Service Times: 9:30 AM, 11:30 AM  
Irvine Campus Service Time: 10:30 AM  
**PASTOR STEVE CHOI**

**Crossway Community Church**

Brea: 695 Madison Way, Brea, CA 92821  
Irvine: 100 Honors, Irvine, CA 92620  
T. (714) 529-5551 / crossway-church.com



EM Sunday Service: 12:00 PM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 Young Adults): 7:30 PM  
**PASTOR JAMES KWAK**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Sunday Service: 9: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PASTOR RONNIE PARK**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gsch.org



### Won't You Be My Neighbor?

BY STANLEY NG

When you see someone whose face you recognize, but then you greet him with a generic, "Hello!" or "Good to see you!" instead of with a name, do you feel like you've truly connected?

What if this person has been coming out to your church service, looking for community? And that's the greeting he received every week - a "Hey" instead of a name?

This was my church experience as a non-believer, and I guarantee, your church has folks who don't feel connected or even noticed.

Because of my past, I've been challenged more and more to properly engage my church community to draw out the unique identity and dignity of those living among us.

God's commission for us was never about keeping people out - it was always about bringing people in. Since the Fall, the world has been on a perpetual trajectory towards isolation, from God and from one another.

So now, many people are struggling to find connections, but you may not be seeing those who are feeling isolated and alone. How do we concentrate on them? I want to offer three suggestions:

**1. Know their presence.** We know that God uses things of this world to proclaim the gospel of grace. Out of my own insecurities and fear, I wish that God would use the natural world more to bring people to faith so that I myself don't have to do anything.

But in Matthew 22:36-40, the greatest commandment is clear: Love God, love

others. Jesus is emphasizing a person-to-person connection to bring people to him.

Imagine you're entering a sit-down restaurant. We appreciate it when we are greeted by a cheerful host. If the host is rude or apathetic, the dining experience is compromised. The same rule applies for our church community.

When we see a face we don't recognize, a simple, friendly "Hi," can easily get us started with the process of knowing a new person and making him or her feel connected.

**2. Know their name.** Have you ever wondered why guest service members wear name tags? It's because they mark the employees as members of a community, recognized by people within the company and by potential customers.

Recognizing people by their names has the same effect. It means they are known. Therefore greeting people by name helps bring them into the community and shows that the church cares for that person.

**3. Know their story.** When Jesus asks us to love our neighbors, I believe it's more than just shaking their hands and adding them on Facebook. It involves knowing their story, recognizing the brokenness of life, and allowing the grace of the gospel to speak into their lives.

It is easy for people to isolate themselves from the world, and so sometimes their deepest desires are simply to be known and heard -- not through the digital stream, but by a neighbor.

For me, this is probably my weakest area, and I realize that this may be diffi-

cult for you as well. But that's where we see the power of God working.

God recognizes my weakness and humbles me to reach out, listen, and recognize the same level of brokenness in the other person. From there, that's where loving others points back to loving God, our ultimate source of recognition.

**4. Known in the community.** When a new person commits to a church, relationship networks are multiplied. When my wife recently joined my congregation, she had a hard time transitioning. She had only experienced small churches, and coming into a congregation with several thousand people was intimidating. She would be quiet to arrive and quick to leave.

But while I was busy doing my Sunday ministries, a few sisters reached out to her. They didn't have to know exactly how she felt. But instead, they lent an open ear and learned her story to reassure her during the transition, recognize her value, and help her realize her unique journey as guided by the Lord.

Yes, building new relationships will take time and effort, but the results will reflect the unchanging gospel within an ever-changing community that exhibits love and freedom from isolation for everyone.

*Stanley Ng is the Executive & College Pastor at Bethel English Church.*

*This article has been republished with permission from the SOLA Network website. SOLA exists to influence the emerging generation with the Gospel of Jesus Christ.*

### Ten Roadblocks to Church Revitalization

BY THOM RAINER

Please pause for a moment. Please prayerfully consider the words you are about to read.

Please ask God for His strength to overcome these roadblocks.

You have seen the data. You know that two-thirds of our churches are plateaued or declining. Even more, among the declining churches are those that are on the precipice of closing, following the pattern of tens of thousands of other churches that have already closed.

Why are so many of our churches not moving forward?

Since so many of our churches are in need of revitalization, let's begin by seeing what roadblocks hinder turnarounds. Here are ten of the most common:

**1. Comfort/resistance to change.** Until our church leaders and members redirect the focus of self-serving to serving others, church members will always be more concerned about their own needs. That attitude leads to comfort and resistance to change.

**2. Lack of knowledge.** Because many of our churches have been negligent about reaching beyond their own walls, they lack the knowledge to know how to get out of the rut and revitalize. Many church leaders and members have good intentions; they simply don't know the next steps.

**3. Despair and defeatism.** It's a vicious and deadly cycle. Churches begin to

decline. That decline leads to despair and defeatism. Then that attitude exacerbates the decline, and thus leads to greater despair and defeatism.

**4. Perception that programs are the ends instead of the means.** There are two erroneous ways of thinking about programs. The first is to reject programs and resources altogether. That is just not wise with the abundance of great programs available. The other erroneous perception is to see programs as the ends instead of the means. That is the attitude of the program-driven church.

**5. The magic bullet syndrome.** This obstacle views the path toward revitalization to be one simple solution. It could be the calling of a younger pastor without any other changes. It could be the return of a worship style. The magic bullet syndrome never works. Never.

**6. Lack of awareness about the community.** Most churches in need of revitalization don't know the community in which they are located. If they happen to open their eyes to the community's demographics and needs, they are often shocked about their misperceptions.

**7. Evangelistic apathy.** This roadblock is pervasive in our churches. If we aren't sharing the gospel, how can we expect to reach people with the gospel?

**8. Deflection of blame.** Some declining churches blame the community members for not coming to their worship services. Our churches will not move forward until the leaders and members take

responsibility for obedience to the Great Commission.

**9. Short-term leadership.** Declining churches often view the next pastor as the magic bullet. If they happen to secure that pastor but make no other changes, the church resumes its decline. The pastor then becomes disillusioned and discouraged, and moves on to another church. The "pastor-as-magic-bullet" church becomes a series of short-term pastorates, exacerbating the decline.

**10. Failure to consider being acquired by another church.** Sometimes, the only path of revitalization is to make the godly sacrifice of allowing a healthy church to acquire the dying church and make the dramatic changes that are necessary. Even more sadly, many churches choose to close the doors rather than make that sacrificial change.

This list of roadblocks is not exhaustive, but it does highlight the common problems. In future posts, I will be sharing with you how some churches have addressed these problems well, and revitalized for the glory of God.

*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at ThomRainer.com on July 17, 2017. Thom S. Rainer serves as president and CEO of LifeWay Christian Resources. Among his greatest joys are his family: his wife Nellie Jo; three sons, Sam, Art, and Jess; and nine grandchildren. Dr. Rainer can be found on Twitter @ ThomRainer and at facebook.com/ Thom.S.Rainer.*

Since 1999

www.e-nca.org



LA 학부모님,  
아직도 학군 따라 이사가십니까?  
가을학기 학생모집 K-9th  
썸머 스쿨 6/5(월)~7/28(금)



무료 앱 다운로드

##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갖춘 명문사립 NCA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 아이비리그 및 UC 계열대학에 진학하고, 타 사립학교 대비 월등히 경제적인 교육비로 소수정예의 교육이 가능한 NCA에서 가르치십시오.

- 졸업생 평균 GPA 4.34 및 SAT 평균 1,350점 기록 (일반 학교 평균 1,000점)
- 지난 18년간 전 졸업생이 UC 계열과 유수의 명문대학에 진학
- LA에서 유일하게 국제학사(IB) 및 AP 프로그램 동시 실행
- 학생과 교사 비율 평균 10:1로 소수정예의 질 높은 교육 환경
- 새 학기 보충수업 위주의 썸머스쿨 운영 (필드트립 등 다양한 액티비티 제공)
- 편리한 교내 애프터스쿨 프로그램 운영
- 미주 최초 한인이 설립한 비영리 기독교 사립학교로서 영성 함양



**NCA 사립 초중고등학교**  
**NEW COVENANT ACADEMY**

3119 W.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20

명문대 입학은 킨더부터 시작됩니다!  
**K-9th 모집**



입학 문의 (213) 487-5437

NCA 킨더가든 모집 명문대 입학은 킨더부터 시작됩니다!

# Human Rights Group Maps North Korea's Killing Sites and Brutalities

## Report says an estimate of more than 300 killing sites exist

While for many years, human rights advocates and defectors from North Korea have decried a lack of concrete data on the abuses perpetrated by the regime, a recent report published on July 19 presented some findings that the group hopes will help further efforts to keep the North Korean government accountable.

For instance, the report — published by a Seoul-based NGO of human rights advocates from five countries called Transitional Justice Working Group (TJWG) — found from interviews with 375 defectors that there are more than 300 suspected killing sites in North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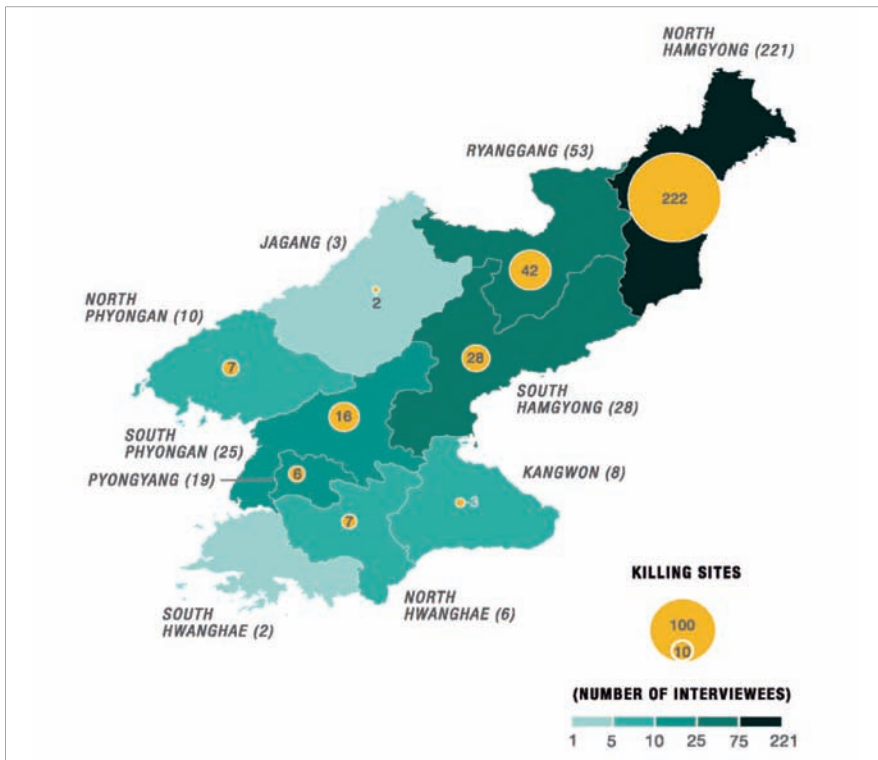
The most number of interviewees, as well as the highest number of suspected killing sites, came from North Hamgyong, from which 221 of the interviewees came, and where 222 killing sites are suspected to be located.

North Hamgyong is also the region in which the most number of 'body sites' are suspected to be located — where the bodies of those killed were either buried, or "abandoned, dumped, hidden without burial, or were storage sites for bodies yet to be buried or cremated." Twenty-four body sites were reported to be located in this region.

The research also identified some patterns across the killing and body sites.

"Our initial research indicates that burial sites are often located in mountainous areas, away from residential areas, but may also be found in parts of common cemeteries and around prisons," said the study. "Killing sites tend to be found in river beds, market places, near bridges, facilities for detention and imprisonment, and sports fields."

The advocacy group identified the possible locations by presenting Google Earth satellite images to the interviewees, and asking them to pinpoint the



The Transitional Justice Working Group (TJWG) mapped the suspected killing sites by region, and also marked the regions in which the interviewees resided. (Photo: Transitional Justice Working Group)

locations they recall. The report itself does not include specific locations, as a precaution to prevent from the North Korean government destroying possible evidence.

"Sites of mass killings and mass burials tend to leave traces and ... evidence that is scientific and tangible," Lee Younghwan of the Transitional Justice Working Group told Reuters. "Through this report, I hope people who are committing atrocities realize that all of their actions are being monitored and recorded in detail and that someday they will face consequences for their misdemeanor."

The report also recognized the limitations of its findings, including the fact that some of the locations may be

repetitions among several interviewees. But the research is an important step forward in aiding future research and investigation, the report said.

"Although it is beyond our current capabilities to investigate and analyse the sites due to lack of access, this research is a crucial first step in the pursuit of accountability for human rights crimes," stated the report.

"It is also designed to serve first responders who may enter North Korea in the future. Part of our work involves looking into rapidly advancing remote sensing (RS) technologies, designed to detect and enhance analysis of sites containing human remains, for future application in North Korea."

# Seven Christians Killed in Wake of Attacks Perpetrated by Al-Shabaab Militants

Seven Christians were killed in Kenya earlier this month by militants from the extremist group al-Shabaab, according to a persecution watchdog group's report on Monday.

International Christian Concern reported that during al-Shabaab's raids in three villages — Pandanguo, Jima, and Poromoko — between July 5 and 8, the militants went door to door in the latter two villages, asking for IDs and killing seven Christian men. The report adds that Christian families in the two regions were evacuated to a church in Witu.

"The attackers have been targeting Christians living in Lamu County especially famers in the interior areas where small-scale agriculture thrives," Pastor Henry Divayo, who leads the Witu church to which the families were evacuated, told ICC.

Divayo added that the al-Shabaab militants in Jima "were asking the vil-

lagers to produce their identification cards and if you were found to be a Christian you would be shot or slaughtered."

According to Divayo, more than 200 are currently finding shelter at his church, and food and security is being provided by the government and the Kenya Red Cross.

Al-Shabaab has been known to target Christians in particular. One of its most well-known attacks included one at Garissa University in 2015, during which almost 150 students were killed. Most of the students were Christians.

More recently in June of 2016, militants killed 48 people in Lamu County who were unable to recite verses from the Quran.

Nathan Johnson, the regional manager for Africa for the ICC, emphasized the need for greater safety and stability to be secured by the government.

"[The government] must end al-

Shabaab's reign of terror that has been thriving on the border with Somalia," Johnson said in a statement.

"We pray for the families of the deceased and for peace to come to a region that has seen such violence towards Christians," he added. "We hope that Kenya's government can take effective action to rid Kenya of these terrorist actions."

Al-Shabaab, which means "The Youth," emerged as a radical youth extremist group in 2006, and pledged allegiance to al-Qaeda in 2012.

It is recognized as a terrorist organization by multiple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Canada, Australia, and the United Arab Emirates.

Though the group is mostly based in Somalia, it has carried out numerous attacks in Kenya because it alleged that Kenya had sent troops into Somali territory.

Sunday Services: 1:30 PM  
Children's Ministry: 11 AM  
Friday Worship: 7:30 PM  
Dawn Prayers: 5:30 AM Tu-F; 6:30 AM Sat.

**PASTOR WON LEE**

**Gospel First Korean Baptist Church**

8132 Garden Grove Bl., Garden Grove, CA 92844  
T. (714) 799-5673 / email: 8132gospelchurch@gmail.com

Sunday Services: 9 AM & 11 AM  
Bible Studies: Wednesdays at 7 PM  
Prayer Meetings: Tuesdays at 11 AM, Saturdays at 9 AM

**PASTOR SAM KOH**

**Hillside Church**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909-9062 / www.hillside.org

Sunday Services: 1:45 PM

**PASTOR MITCHELL PEREZ**

**The Home Church**

19100 E. Killian Avenu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384-1393 / thehomechurchrowland.com

Sunday Services: 11:45 AM

**PASTOR DAEVID YOON**

**Inland Church**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 inlandem.org

Sunday Services: 2 PM

**PASTOR SUNGWON 'SJ' JAHNG**

**LA Open Door Community Church**

3281 W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20  
T. (213) 986-8496 / www.laopendoor.church

Sunday Services: 9 AM & 11 AM  
College Group Meetings:  
Sundays at 12:30 PM, Fridays at 8 PM

**PASTOR STEVE CHANG**

**Living Hope Community Church**

1215 W. Lambert Road, Brea, CA 92821  
T. (562) 694-2100 / www.livinghopecc.org

Sunday Services:  
8:30 AM, 9:45 AM & 11:15 AM

**PASTOR PAUL KIM**

**Redeemer Presbyterian Church**

1831 South El Camino Real Encinitas, CA 92024  
T. (760) 753-2535 / www.redeemersd.org

Sunday Services: 1 PM  
Youth Group Services:  
Sundays at 11 PM, Thursdays at 7 PM

**PASTOR DANIEL HAN**

**Restore Fellowship**

2525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487-3920 / www.ladongsan.com

Broadway Campus Sunday Services:  
9:45 AM, 11:15 AM, 12:45 PM  
Jefferson Campus Sunday Services:  
9:30 AM, 11:30 AM

**PASTOR MICHAEL LEE**

**Young Nak Celebration Church**

Broadway: 1721 North Broadway, LA, CA 90031  
Jefferson: 150 W. Jefferson Blvd., LA, CA 90007  
T. (323) 227-1414 / www.ynccla.org

ANC 세미나 공식 후원업체

# GSI 블랙박스

"차량용 블랙박스 판매/무료 설치"

## GSI에서 제공하는 최고의 블랙박스과 함께 안심 운전하세요

**1**

**Aitz SMVB-6100**

- 컴팩트 실속형 (주차감시 모드 시 전/후방 모션 감지 및 충격감지를 동시에 지원)

**\$150 전.후방**  
**\$190 전.후방**

**2**

**Aitz ROAD**

- 3.5인치 터치스크린
- 포맷프리, 고온 차단 기능
- 128GB까지 인식

**\$220 전.후방**

**3**

**Aitz ALPHA**

- 4.0인치 FHD 외 터치스크린
- 첨단 안전운전자원 시스템(ADAS) 탑재
- 포맷프리
- 외부에서 잘 보이지 않으며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는 최적의 탑재위치

**\$320 전.후방**

**4**

**Aitz RC-100**

- 후진기에서 자동으로 주차영상을 보여주는 콤보형
- 4.0인치 터치스크린

**\$320 전.후방**

**5**

**eCell e-FOCUS**

- 분체 분리 2채널 초소형 카메라
- 스마트폰 연동기능 (모바일 앱 통해 녹화영상, 실시간영상, 충격영상 확인가능)
- 포맷프리
- 앱 무료설치 및 업데이트
- 스트리트 파킹도 안심하세요

**\$320 전.후방**

\* 그외 상업용 차량 및 모터 사이클용 블랙박스 판매

전시 및 Warehouse  
**GSI Systems, Inc.**  
860 E. La Habra Blvd, #220A  
La Habra, CA 90631

**GSI 블랙박스 판매/설치 연락처**  
**LA & OC : T (408)966-8595, (714)349-8131**  
GSI SYSTEMS INC. - DASHBOARD CAMERA COMPANY  
유입차 (Benz, BMW, Audi 및 특수차량용은 추가요금외 부가필수 있습니다.)

**Coupon**

기독교일보 독자들만을 위한 혜택!  
이 쿠폰을 지참하신 분들에게는  
Micro SD Card 32GB 무료 증정

### 목사 안수 및 강도사 인허

본 교단과 노회에서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소명과 사명은 있으나 아직 목사안수를 받지 못하였거나 강도사 인허를 받지 못하신분들에게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 자격
1) 대학교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였거나 동등한 자격이 있는자.
2) 목사 : 소정의 교육후 시취후 목사안수
3) 강도사 : 소정의 2주간 교육후 시험을 분후 강도사 인허

신, 편입생 모집
본 신학대학원은 개혁주의 학교로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세워진 신학교로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캘리포니아 주교육국에 종교학교로 정식 인준 받은 학교입니다.

학위과정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을 모집합니다.
특히 타 학교에 없는 지역에서 필요한 학과들이 많이 준비 되어 있습니다.

총신 대학교 신학 대학원
CHONGSHIN UNIVERSITY THEOLOGICAL SEMINARY
총장 : Dr. DAVID LEE, 학장 : Rev. YONG CHOI

### 흐르는 물, 구르는 돌, 개혁적인 교회



민중기 목사
총현선교회

오랜 만에 동네 뒷산을 올라갔습니다. 라크라센타의 뉴욕 길을 따라가다 듀크메지안 공원에 차를 세우고, 멀리 보이는 루켄스 산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하여 지속적인 운동이 필요한 것처럼, 자연계에도 지속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고국에는 비록 장마가 지고 흥수가 나가는 했지만, 그동안 강과 시내의 더러운 물과 상한 물, 그리고 고인 물에 생긴 녹조 라떼가 모두 떠내려가고, 이제 물고기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찌 사람의 몸과 환경에만 적용되었습니까? 저는 사회나 공동체도 여기서 예외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어떤 교회는 정제된

교회가 있습니다. 편하기는 하지만, 움직이지 않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아이 우는 소리도 안 들리고 젊은 이도 없는 조용한 공동체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 공동체는 역동적인 곳도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 정착하고, 젊은이들은 사회와 선교지를 익히기 위하여 열심히 공부하고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고, 성도들은 고인 물이 되지 않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배우고, 실천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고, 흠여져서 봉사하고, 변화되기 위하여 안간힘을 씁니다.

흐르는 물과 같아서 썩지 않는 교회, 구르는 돌과 같아서 이끼가 끼지 않는 교회는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개혁적인 교회"입니다.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가장 개혁적인

교회는 초대교회였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로마제국을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에 개혁적인 교회는 16세기 종교개혁 시대의 독일 루터파 교회, 스위스의 칼빈파 교회였습니다. "개혁교회"라는 이름은 여기서 나왔습니다. 더욱이 칼빈파 교회는 스위스에서 개혁교회로, 스코틀랜드에서 장로교회로, 네덜란드에서 개혁교회로, 잉글랜드에서 청교도로, 그리고 나중에는 미국에서 장로교와 개혁교회로, 역사를 바꾸는 신가원을 이룩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기독교 역사 속에는 청산의 대상이 되었던 교회도 있습니다. 스스로 개혁되지 못했던 타락한 중세교회, 구제론 끈 앙시앙 레짐의 일부가 되었던 프랑스 교회, 그리고 공산주의에 의하여 타도대상이 되었던 러시아 정교회는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한국 기독교는 어떠한가 걱정이 됩니다. 돈, 명예, 표절 시비, 성적 타락, 목회세습 그리고 세속화 등으로 개혁 의지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개혁을 위한 간절한 기도와 작은 것부터 개혁하는 것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 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픽/업/가/능
P.G.A Player Tour (12-14살 1~2명 모집)
P.G.A Player Tour (8-11살 1~2명 모집)
Email : mrjacob601@hotmail.com
문의 : 최 제이콥 프로 T(310) 598-0746
Golf Studio 각종 골프클럽 최저가 판매

LA 예담교회 부설 다중지능 교육원
성격과 적성에 맞는 나 자신의 미래 직업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람의 지문(Finger Print)은 태아의 뇌 발달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여 형성됩니다.

(최 제이콥 목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ea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신학박사
LA 예담교회 담임목사

### 양로병원 노인 분들을 위한 제24회 찬송가 경연대회

올해로 22년째 양로병원을 봉사 하던 중에 어려운 형편으로 가족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외로움도 달래고 치매 예방을 위해 찬송가를 암송하므로 매일 소일거리가 생겨, 정신적으로 좋은 결과가 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같이 섬겨주실 봉사자와 동역자 구합니다.
찬양대회 장소와 예배시간
장소 : 중앙양로병원 (Mid Wilshire Health Care Center)
시간 : 2017년 12월 16일(토) 오전 10시
676 S. Bonnie Brae St., LA, CA 90057
상금 후원을 도와주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체크이름 : Loving Church of the Disabled =>L.C.D

협찬
가주처와 대표 오덕재 원장, 나성열문교회, 은혜한인교회, 나성순복음교회, LA사랑의교회, 마동환 변호사 그룹, 팔가순대, 뉴욕제과, 한솔종합보험, 한인동포재단, OC 한인회 행복재단(한영재), 라이온스클럽, 올림픽 칼국수

후원
기독교일보, FH미션
장애우사랑교회
연락처 : (213)870-8474/ Fax:(323)870-5522
P.O.Box 742017 Los Angeles, CA 90004

### 폭풍 속의 고요함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폭풍 속에서 고요한 마음을 가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끔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고요한 숲에서 고요한 마음을 가꾸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거센 바람이 불어올 때 고요한 마음을 가꾸는 것은 어렵습니다.

저는 목회 여정에서 가끔 거센 폭풍을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갈대처럼 연약한 인간이기에 거센 폭풍을 만나면 두렵습니다. 낙심이 됩니다. 염려가 앞섭니다.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인생의 폭풍을 여러 번 거치면서 폭풍 속에도 고요함을 가꾸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폭풍 속에서도 고요한 마음을 가꿀 수 있을까요?

첫째, 인생에 가끔 찾아오는 폭풍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지혜입니다. 폭풍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폭풍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타신 배에도 폭풍은 찾아왔습니다. 광풍이 찾아오면 그것을 당연히 여기는 훈련을 하십시오. 우리가 늘 힘들어하는 것은 내게만 어려움이 찾아 왔다는 생각입니다. 왜 내게만 이토록 힘든 일이 생겼냐는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연하

게 맞이하십시오. 또한 폭풍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둘째, 폭풍이 찾아오면 "폭풍의 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는 폭풍이 찾아오면 두려워하는 나머지 눈을 감아 버리게 됩니다. 폭풍은 두려움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용기를 가지고 대면함으로 해결됩니다. 폭풍을 노려보십시오. 폭풍의 눈을 찾아 그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거센 폭풍 중에도 고요한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곳은 "폭풍의 눈"입니다. "폭풍의 눈"을 찾아 들어가기 위해서는 폭풍 중에도 침착해야 합니다. 또한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시 46:1).

셋째, 폭풍이 찾아오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제자들은 광풍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 큰 물결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눈길이 어디에 머무느냐에 따라 우리의 감정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광풍을 만나면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잊어버립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인생 여정에 광풍이 없으리라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사 43:2).

넷째, 예수님께 폭풍을 잠잠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풍랑을 잠잠케 해 주십니다. 거센 파도를 잠잠케 해 주십니다. 거센 파도는 우리의 힘으로 잠잠케 할 수 없습니다. 폭풍 중에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명령에 모든 거센 풍랑은 잠잠케 됩니다. 폭풍이 오면 잠시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잠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신비로운 평강이 우리 마음에 깃들게 됩니다.

폭풍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시 지나가는 것이 폭풍입니다.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폭풍은 곧 지나갑니다. 부디 아침마다 말씀 앞에서 고요한 마음을 가꾸십시오. 고요한 마음을 날마다 가꾸어, 만나는 사람들에게 고요함을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박성근 목사
로스앤젤레스한인침례교회

오래 전 가이드 포스트에 이런 스토리가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자매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는 교회도 나가고 착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길을 잘못 들어, 하나님을 등지고 신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나중에 집에서 쫓겨나고, 형편없는 지경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해서는 안 될 더러운 일들을 하며 자신의 인생을 내팽개쳤습니다. 결국 에이즈로 죽어가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때 한 목사가 그녀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냉담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버림 받은 영혼입니다. 나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행복까지 망쳐 놓은 사람이지요. 고통스럽지만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같은 인간은 더 이상 희망이

하고, 못한 짓을 하고, 그래서 집을 나간다면, 용서하고, 사랑으로 안아 줄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받아줄 것입니다. 저 아이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없는 사랑하는 저의 딸이니까요. 그런데 그건 왜 물으시죠?"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웃장 위에도 당신의 사진이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로 놓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없는 사랑하는 딸이니까요." 이 말을 듣자 그녀의 마음이 열렸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새 삶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해 실망하고 스스로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무슨 일을 당하건 이 사랑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살림!



**온라인 쇼핑 비즈니스**  
 주부, 여자 유학생 환영  
 주 8~10시간 사용하여 엑스트라 수입을 창출  
 연락처 T(818)590-6078

#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Family 자동차** 새차 맞춤 리스 중고차 매매  
**\$ 중고차 최고가 매입 \$ "기본 \$700 더 드립니다."**  
**213.453.5900 714.743.1000**  
 933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familyauto.us

**한미사랑**  
 한의사 **Zo'e 조애**  
 Tel: (213) 718-8275  
 이제마 사상 체질 맥 30년 전문  
 체질맥, 장부맥, 병맥, 설진

심혈관 질환, 간질환, 중풍, 소화기문제, 내분비문제, 부인병, 고혈압, 당뇨, 부종, 알러지, 신장병, 각종통증, 갱년기, 생리통, 생리불순 (아들 원하시는 분)  
 2120 W. 8th St, #208, LA, CA 90057(8th & Lake St.) (일수토 예약 필수)

**CD PRINTING** 323.265.0244 junimedia@gmail.com www.junimedia.com

교회학교, 부흥회 시디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량,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프린트CD+CD봉투+라벨  
 1,000장 \$350  
 3,000장 \$950 (3천장 이상시 디자인무료)

\$160 (디자인 포함) Retractable Banner \$140  
 Stand X-Banner \$65

**선교 찬양 단원 모집**

• 단장 : 1명 • 기타 : 1명  
 • 단원 : 12명 • 키보드 : 1명

\* 40~50대 남녀  
 \* 찬양선교에 관심있거나 동참하고자 하시는 분

문의 : T.(213)800-5205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무료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인하소반주** 각종 김치  
**626-731-7864** (\$40이상 주문시) 무료배달

갈비만두, 매운갈비만두 (40개 \$20)  
 김치교자, 부추교자 (50개 \$20) 왕만두, 팔짚빵 (10개 \$10)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SAMSUNG SHIPPING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리프팅 라인·지방분해**

최신장비 도입  
 \*리프팅 라인 4회 \$999  
 \*부분지방 분해 5라인 8회 \$999

•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 각종 피부병과 아토피
- 습진 화농성 여드름

✓ 손가락 {류마티스 관절통증, 퇴행성 관절통증, 손목, 발목 질환} \*지독한 코골이 증상

• 치질(항문하혈, 통증) • 우울증  
 • 독소제거, 혈관 청소 • 관절염, 다리 쥐 오름  
 •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 원형탈모, 지독한 비듬  
 • 불임증 (자궁축, 하혈) • 만성두통, 요통  
 • TMJ 턱관절 장애 \* 쉽게 담배를 끊을 수 있는 약 취급합니다.

치아 파우더 3대째 기업으로 이어온 영선한의원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3달분 \$60

배 빠는 속변역!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고,  
 몸 전체에 부종이 빠지는 약  
**한달 \$50**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213)380-7800 각종보험취급 (교통사고 전문 병원)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 월~금:10시~5시/ 토 10시~2시

**한인교회를 위한 SUMMER EVENT**

**MAKER FUN FACTORY** Created by GOD Built for a Purpose

**VBS T-Shirt** Full Color Printing  
 Adult \$ 7.20  
 Kids \$ 5.50

그 밖에도 VBS를 위한 물티슈, 가방, 배너, 포스터, 초대장 디자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CD PRINTING** 교회학교, 부흥회, 시디앨범, 신학교강의 오디오북 소량,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프린트CD+CD봉투+라벨] 포함입니다.

**BANNER** 인기 상품 A형 스탠드배너  
 \$65 Stand X-Banner  
 \$140 Retractable Banner  
 \$160 (디자인 포함)

3170 E. 11th Street, Los Angeles, CA 90023 323.265.0244 E-mail: junimedia@gmail.com

신간 도서

추격하시는 하나님

신현아 | 콤팩 | 400쪽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한 점이 많았던 저자가 신대원에서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공부하면서 답을 찾아간 여정을 담았다. '노아는 왜 가나안을 저주했을까?', '하나님은 왜 야곱과 씨름을 하셨을까?', '왜 하필 불뱀을 보내셨을까?', '바울은 왜 도망쳤을까?' 등에 대한 답이 담겼다. 저자는 이런 궁금증들이 성경의 메인 테마와 상관없는 줄 알았지만, 공부하면서 매우 중요한 것임을 알았다고 한다.



추천 도서

기름부음에 대한 메시아적 관점의 연구서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하나님의 기름부음

오늘날 한국 개신교회를 여러 가지 관점에서 분류할 수 있겠지만, 늘 빠지지 않고 분류되는 관점 중 하나가 바로 '은사주의'와 '비은사주의'일 것이다. 물론 비은사주의라 불리는 사람도 성령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사들을 인정한다. 그럼에도 둘의 차이는 '성령세례'와 같은 세밀한 부분에서 나타나는데, 점점 그 간격은 넓어진다.

본서의 저자는 신사도주의자들이 즐겨 사용하는 '기름부음'이라는 용어에 대한 호기심에 연구를 시작했다고 밝힌다. 그러나 본서는 신사도주의자들이 사용하는 '기름부음'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일반 성경의 순서에 따른 '기름부음'에 대해 개괄적 연구를 한다.

'기름'은 성경 안에서 '피'와 함께 동전의 양면처럼 짝을 이루는 주제이다. 제사를 드릴 때 제단에 피를 붓지만, 하나님의 직분자를 세울 때는 그 머리 위에서부터 기름을 붓는다. 피가 생명을 의미하는 것처럼, 모든 생명체는 기름이 소진되면 그 생을 마감한다. 즉 피는 기름의 에너지를 통해 그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 동안 '피'에 대해서는 신학적 연구가 많이 돼 있었지만, '기름'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진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서는 '기름'이라는 주제에 대한 연구의 시작점이라는 것에 의의가 있다.

2장에서는 '구약의 기름', '기름부음', '기름부음 받은 자'에 대한 내용들을 개괄적으로 다룬다. 구약에서 나오는 기름은 제물로 드리는 기름, 축복으로 받는 기름,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하는 기름이 설명된다. 기름부음은 구약에서 어떤 명료한 패턴을 가지는 않는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기름부음과 기름부음 받은 자에 대한 성별적인 식들이 정리되어진다.

3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메시아 사상'에 대해 살핀다. 사실 일반적으로 최초의 메시아 사상이 등장하는 구절로 창세기 3장 15절을 언급하지만, 그것은 후대의 관주적 해석에 근거한다. 실제로 메시아 사상의 전조는 주전 586년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기 직전 태동됐다. 그리고 메시아 사상이 구체적으로 발전되기 시작한 때가 주전 3세기라는 데 학자들은 일치된 견해를 보인다. 여기서 한 가지를 덧붙인다면, 이 시기 묵시적 성경과 영적 세계(천사와 마귀)에 대한 내용들이 성경과 신앙의 관심 주제로 등장한다.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은 자로서의 '기름부음 받은 자'라는 개념은, 초월적 구원자의 의미로 확장되면서 메시아 사상이 정립



하나님의 기름부음 황의찬 | CLC | 328쪽

된다. 그리고 다음 장부터는 신약성경의 기름부음과 예수 그리스도, 초대교회 이후의 기름부음에 대해 다루며 이에 대한 목회적 적용을 살핀다.

본서는 기름부음에 대한 메시아적 관점의 연구서이다. 그동안 '피'를 중심으로 메시아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던 점에서, '기름'을 중심으로 메시아를 연구한 것은 신선한 출발의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한다.

그럼에도 오늘날 목회의 현장에서는 신사도주의에 영향을 받은 자들이 '보혈', '기름부음'이라는 용어들을 자주, 그리고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들은 과거 구약의 제사장, 선지자, 왕과 같은 자들이 기름부음으로 세워졌고, 기름부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였던 것을 현대적으로 '성령의 기름부음'이라 이해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이적과 표적을 믿는 것을 넘어 이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큰 믿음'이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이적과 표적에 대해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신앙인들이 과연 성령을 받았는지(성령세례)를 의심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사실 성령세례의 부분은 아직 신학적 논의 중에 있으며, 다양한 관점들이 건전한 교단 안에서 각각 통용되고 있다. 그러나 신사도주의자들 중에서 일부가 주장하는 방언이나 각각의 은사주의적 이적들을 통해 그 사람의 구원이나, 믿음의 정도를 규정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신약에서 성령의 기름부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사역을 이어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성령)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표적'과 '이적'을 요구한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 그리고 유대인들에 대해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을 언급하시면서, 이적과 표적을 요구한 자들에 대해 악하다고 꾸

짚으셨다. 그러므로 '이적'과 '표적'은 기름부음(믿음)의 척도가 아니다. 분명 성령의 기름부음 안에는 '이적'과 '표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리처드 A. 브릿지가 언급하였듯, 신약성경에서 '이적'과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난 악한 자들의 요구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이적'과 '표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두나미스(능력)'를 행하셨다. 그 능력은 이적이거나 표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사랑'을 나타내신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만족적이고 자기성취적인 일부 신사도주의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병을 치유 받거나 경제적 회복이나 기적적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자기 목적과 자기 비전의 성취에 치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인정할지는 모르겠으나 결국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는 자기중심적 신앙인들이므로, 어쩌면 본서는 그들에게 더 유익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들은 기름부음(성령)을 권세, 능력 등으로 보기 전에, 먼저 기름부음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메시아는 자신의 비전과 목적을 성취하는 방편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능력이다.

본서에 대해 필자는 두 가지 평가를 하고자 한다. 첫째 기름부음에 대한 연구로서는 대한영이다. 성경에서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름은 성령의 입재와 권능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기름에 관한 연구와 이해가 각각도에서 이뤄지는 출발점으로서 본서를 환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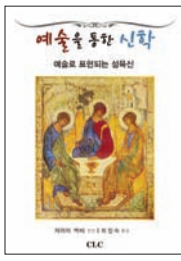
두 번째는 문자 중심적 전개이다. 이 부분은 오늘날 대부분의 개신교회에서 갖는 성경 해석의 한계로서 극복해야 할 과제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좀 더 깊이 있게 역사와 문화, 사회 등의 인문적 연구를 접목하여 연구가 되지 못한 것과 개신교 외 주변종교(성공회, 동방교회, 이슬람 등)의 관점과 견해들을 살피지 않은 것이 아쉽다.(5장과 6장에서 시대적 특징과 로마카톨릭에 대해 아주 잠깐 언급되고는 있으나, 내용은 매우 형식적이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시도가 매우 참신한 것으로 그리스도교의 기름부음에 관한 흐름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해 준다. 본서가 앞으로 기름부음에 관한 연구의 밑거름이 되어, 메시아에 관한 부분뿐 아니라 더욱 넓은 스펙트럼에서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강도현 목사(크리스찬북뉴스 운영자)

예술을 통한 신학

제레미 벡비 | 최정숙 역 | CLC | 264쪽

성육신에 대한 여러 이해들을, 예술의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는 현직 예술가, 목회자, 신학자들이 고민하며 구체적으로 표현한다. 보통 예술이라 하면 그림을 떠올리지만, 책에서는 문학, 시, 춤, 심지어 대중음악 분야를 통해서도 성육신의 의미를 조명하고 있다. 성육신이 주는 구체화된 메시지를, 예술 전 분야에 걸쳐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준다.



아빠랑 성경 말놀이

다이어 스톱츠 | 생명의말씀사 | 40쪽

자녀들과 성경으로 글과 말을 놀면서 함께 배울 수 있는 보드북이다. '하나님의 세상'이라는 테마로 생활 속에서 만나는 여러 장면들을 그림에 담아, 자연스럽게 단어들과 글자를 익힐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각 장마다 짧은 성경구절과 묵상글, 기도문을 수록해 신앙적으로 연결시켰다. 동일한 저자가 <엄마랑 성경 말놀이>란 책도 펴냈는데 각 권마다 성경말씀 20구절, 성경(생활) 이야기 20개, 한문장 기도 20개, 동식물·사물 단어 100여개가 나오도록 했다.



농장, 기도원, 고급주택

- 71만불의 가치—— 단 41만불
- 고급주택 3Bedroom, 3 Bathroom
- 매달 3,000불의 매실 수익
- 우물 7만불의 가치 2개 있음
- 큰 도로 옆에 있어 편리함
- 유명한 구름이 머무는 곳 근처
- 제주도 날씨와 같이 한국에서 나는 과일,야채 100%재배 가능

연락처 : T.(213)298-8384 James Nam  
주소 : 1232 Westchester Pl, Los Angeles, CA 90019

북한간부의 하나님을 만나기까지와 순교한 스토리

- 우리들의 회개와 동족들의 마음을 얻어 통일의 꿈을 줄 두 권의 책 -



- 구매했: 미주두란노와 기도운동복선교회 (\$20/권당)
- 문의: (425) 775-7477, www.gideonbrothers.org  
gbmwusa@gideonbrothers.org (온라인주문가능)
- 주소: GBMW (체코모터명과 우편수취명 동일)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영혼의  
진주를  
사세요

| 소강석 지음 |



320면 / 13,000원

예수  
마니아가  
되라

| 소강석 지음 |



320면 / 13,000원

# 혈당수치가 내려가면 행복지수가 올라갑니다

식후 혈당 억제를 도와 혈당 걱정 없는 인생, 이제 **프로지골드**로 활짝 웃으세요.



**당뇨환자, 반드시 아연 섭취해야!**

## 프로지 골드

**PRO-Z GOLD**

혈당수치 조절 및 혈당관리의 시작

**나이와 상관없이 빠르게 좋습니다.**

당뇨병 환자 10명 중 3명은 자신이 당뇨병 환자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연령대별 당뇨병	30~44세	45~64세	65세 이상
환자 인지율	54.4%	73.2%	81.3%

특히, 30~44세의 젊은 당뇨병 환자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환자가 당뇨병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일본의 전국 약사 1,000명에게 당뇨병 신지식을 가르치고 있는 가사하라 도모코 약사의 저서 "당뇨병, 약을 버리고 아연으로 끝내라" 에서 미네랄의 하나인 '아연'에 당뇨병 치료의 열쇠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당뇨약만으로는 당뇨병이 낫지 않는다. 우리가 먹은 음식은 체내에서 대사를 거쳐 에너지로 변한다. 그 에너지의 재료가 되는 물질을 3대 영양소(탄수화물·지방·단백질)라고 하며, 이 영양소들이 에너지로 바뀌는 작용을 돕는 물질이 비타민과 철, 아연, 마그네슘 등의 미네랄이다. 대사를 촉진하는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하면 애써 섭취한 3대 영양소가 에너지로 바뀌지 못하고 체내에 남아돌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 혈액 속에서 벌어지면 고혈당·고지혈증이 되고, 지방세포에 축적되면 비만으로 이어져 혈당이 올라가는 사태를 일으킨다. 이것이 당뇨병의 원인 중 하나다.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해서 고혈당이 되었다면 당뇨약을 먹거나 식사량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게 당연하다.
- 아연이 인슐린 작용을 돕는다.  
당뇨병 환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꾸준히 약을 먹어 혈당을 낮추어도 당뇨병이 완치되지 않는 것이다. 인슐린 주사도 맞으면 맞을수록 동맥경화가 진행되고 해서 마음이 편치 않다. 인슐린은 혈액 중의 포도당을 세포에 들여보내서 높아진 혈당을 낮추는 작용을 하는 유일한 호르몬이다. 인슐린이 작용하지 않으면 체내 세포 대부분은 혈액으로부터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끌어들이지 못한다. 생명을 유지하는 중요한 작용을 인슐린이 하는 것이다. 다행인 점은, 인슐린이 적절히 작용하도록 돕는 영양소가 있다는 사실이다. 바로 아연이다. 아연은 뼈의 신진대사를 비롯해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미네랄이다. 간에서 쓸개즙을 만들어 내보내는 통로인 쓸개관에 필요한 효소와 공팔에서 혈압을 조절하는 효소가 기능을 발휘할 때 인슐린이 필요한데, 이러한 인슐린의 작용에 아연이 꼭 필요하다. 아연이 부족하면 혈당 조절 기능이 나빠지고, 합병증의 위험성이 커지며, 빈혈과 식욕부진, 미각장애, 불면증에 걸리거나 활력이 솟지 않는 등 크고 작은 증상에 시달린다.

### 아연은?

체내에 소량 존재하지만 생체내 여러 효소의 구성성분이 되고, 핵산의 합성이나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관여하는 필수적인 미량 영양소입니다.

### 당신의 체내 아연(Zn)은 제 기능을 다하고 있나요?

우리 몸의 필수 영양소 아연(Zn)은 당뇨와 같은 대사질환 및 특정상황에 노출된 분들에게 체내흡수가 어렵고 흡수가 되더라도 짧은 시간 안에 유실되어 제 기능이 발휘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 프로지골드의 특별함은

### 아연(Zn)의 흡수력과 지속력

송문기 박사의 세계적 특허 Cyclo-z 관련 기술이 적용되어 귀하의 체내 아연(Zn) 흡수력과 지속력이 혁신적으로 증가됩니다. 이제 활발한 아연대사(Zinc Metabolism)가 가져다 주는 변화를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임상실험이 입증하는 프로지 골드의 효능!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송문기 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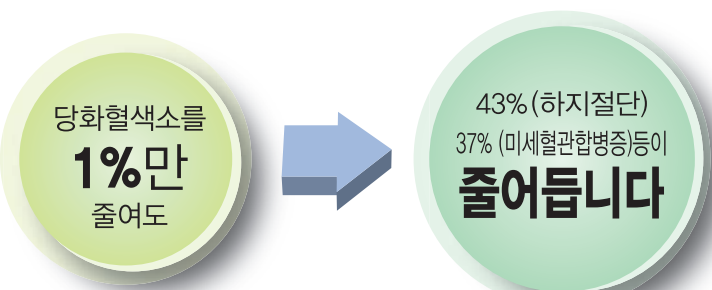
## 아시나요?

당뇨 치료, 당뇨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첫걸음

## 당화혈색소(HbA1c) 1%

## 줄이기에서 시작됩니다

혈당수치를 조절한다고 치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 당화혈색소(HbA1c) 조절목표는 6.5%

당화혈색소 수치는 당뇨 합병증 발생을 반영하는 가장 좋은 지표입니다. 당화혈색소를 정상으로 유지하도록 혈당을 철저히 조절하면 할수록 합병증 발생은 줄어듭니다.

- 43% 하지절단 또는 말초혈관 질환
- 37% 미세혈관 합병증
- 21% 당뇨병 관련사망
- 14% 심장마비
- 12% 뇌졸중

당화혈색소 수치개선은 일시적 혈당조절이 아닌 신체기능의 회복에서 수치가 나타납니다.

### 송문기 박사, 그는 누구인가?

- \* 국가대표 재미과학자 송문기 박사
- \* 40년간 당뇨병, 비만 그리고 난치병 연구
- \* UCLA대학 생화학 분야 연구교수
- \* 미 연방재향군인병원 개발센터 수석 연구원등

### 송문기 박사의 Cyclo-Z

인슐린감도개선을 통한 당뇨치료제 신약후보물질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 미국 정부기관(V.A. Hospital)에서 투자지원, FDA승인 및 임상 2a를 성공적으로 진행중에 있으며 신치료제 상용화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송문기 박사는 이러한 업적과 인류사회에 미치는 공로를 인정받아 세계 3대 인명사전중 하나인 Marquis Who's Who에 등재되는 쾌거를 이루어 냈습니다.

**1병 \$60+Tax**  
**3병 \$170+Tax**  
**6병 \$330+Tax**



핵심은 아연의 흡수 (CHP 특허물질 아연의 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

**문의 전화 213.434.1170**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텔레마케터 모집**  
문의 : 949-864-9162